

서울 특성화고 27개 학과, 바이오·AI 등 신산업분야 개편

미래 지향적 신산업분야 진출 도모
2023학년도 3월부터 신입생 모집
2016년부터 교육부·교육청 진행

서울 특성화고 21개교가 학과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의 미래 지향적 신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직업계고 21개교에서 27개 학과가 준비 과정을 거쳐 2023학년도 3월부터 새로운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도록 중등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해 신산업분야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는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산업수요

〈서울 특성화고 인공지능(AI) 고등학교 선정 현황〉

/서울시교육청

선정연도	학교명	분야	학과
2020	서울디지털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빅데이터과
	선린인터넷고	인공지능	정보보호과, 소프트웨어과
	선일이비즈니스고	빅데이터	빅데이터소셜마케팅과, 빅데이터소셜미디어과
	성동공업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과
2021	광운전자공업고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인공지능컴퓨팅과 등
	세명컴퓨터고	인공지능융합	스마트보안솔루션과, 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등
	한세사이버보안고	클라우드·보안 등	메타버스게임과, 클라우드보안과
	송파공업고	AI	시전자과, AI컴퓨터과

에 맞춘 미래 유망 분야로의 학과 개편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과 매력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1개교 27개 학과가 학과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스마트팜(PET)경영과, 친환경자동차과, 반려동물케어과, 바이오

코스메틱과, 인공지능(AI)전자과 등 신산업분야의 학과 개편이 다수 선정돼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27개 학과를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는 기존 컴퓨터전자과를 인공지능컴퓨팅과로, 기존 컴퓨터전기과를 인공지능전기과로 개편한다. 중구 대경상업고등학교는 기존 금융경영과가 방송공연콘텐츠과로 탈바꿈한다.

중구에 위치한 성동글로벌경영고는 글로벌경영과를 반려동물케어과로, 한양공고는 자동차과를 친환경자동차과로 개편했다. 송파구 소재 일신여자상고는 국제통상과를 스마트팜(PET)경영과로 바꾼다.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신소재금형과는 3D프린팅금형과로,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컨벤션경영과는 미디어사운드과로 바꾼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편되는 학과의 전

문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확보와 학생 교육활동,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해 1학과(2학급)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광운전자공업고, 세명컴퓨터고, 한세사이버보안고, 송파공업고 등 인공지능 분야로 특화된 학과로 개편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인공지능(AI) 고등학교로 선정 지원한다. 지난해 4개교 선정에 이어 올해도 4개교를 선정하고, 인공지능 전문 기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3억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성화고는 우리의 미래"라며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고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신산업분야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연세대-서강대, 교육과정 공동 개발 나선다

고등교육계 변화 선제 대응
교과목 공동 개설... 수강 개방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양 대학은 지난 11일 연세대 언더우드관에서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두 대학의 교원들은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해 양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개방하게 된다.

서울 신촌에 위치한 양 대학은 지역적 근접성에 기독교와 가톨릭이라는 설립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등교육계에 찾아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 개방과



서승환 연세대 총장(오른쪽)과 심종혁 서강대 총장이 양 교의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대

공유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해 이번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연세대는 올해 2월 교육 플랫폼 '런어스(LearnUs)'를 오픈해 학위과정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빅데이터 및 치의학 과정과 같은 전문과정

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5개 국내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학사과정 교과목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등, 타대학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연세대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문호를 열고 있다. /이현진 기자

학교폭력 예방 위한 '스쿨벨' 운영

서울시교육청, 신중 학교폭력 안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신중 학교폭력 안내 - 스쿨벨 시스템(이하 스쿨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스쿨벨은 '얼굴 합성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 신중 학교폭력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학교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신중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 없어 범죄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됐다.

'스쿨벨'은 TF팀에서 서울시교육(지원)청·117 신고센터·학교 전담 경찰관(SPO) 활동 등에서 확인한 다양한 학

교폭력 사례 중 신속하게 전파해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공유사례를 선정해 온·오프라인 활용이 가능한 카드뉴스 및 포스터 형식의 자료로 마련된다. 자료는 2개월마다 새로 제작된다.

학교는 '스쿨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학교 e-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1407개 학교 게시판에도 포스터 자료가 각 20부 부착돼 학생 83만명, 학부모들 150만명에게 전파된다.

서울시경찰청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과 협조해 학교 방문 시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SNS 채널(카카오톡 채널 '스쿨벨')을 개설해 자료를 탑재하고 실시간 소통도 한다.

한편, '스쿨벨' 명칭은 학생 및 SPO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해외대학에 한국어강좌 제공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사업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는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2021년에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더 해외 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은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국내-해외 대학 연계 또는 해외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실시간 또는 VOD형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해 '2021년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현재 일본, 베트남, 캄보디

아, 키르기스스탄 4개국 7개 교류대학에 한국학 및 초·중급 과정의 한국어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제공하고 이를 해외 대학과 협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한국외대는 사업 기간 동안 해외 대학에 한국어 강의를 송출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 학습 보조 자료나 교구 개발도 추진해 교육 효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지역 신규 교류대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외대 한국어학부는 '세계 한국어교육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보급할 한국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어교육 전공'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국적의 국내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개최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가 오는 17일 국내 디아스포라 연구자들을 초청해 '재이주 시대의 디아스포라 연구'를 주제로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학, 미디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이주' 현상을 다룬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재이주'가 한국의 사회·정치적 상황 및 자본 이동의 변화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고찰하고 디아스포라를 집단적 성격이 아닌 개인 단위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들이 속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층, 문화 및 미디어 환경, 세대에 따른 다양성 등을 파악한다.

토론은 ▲김계자(한신대) ▲배진숙(건국대) ▲서기재(건국대) ▲조수일(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디자인·기술 융합 스마트패션 전시

버추얼 메타버스형 전시

국민대학교 모듈형 스마트패션 플랫폼 연구센터가 국민대의 핵심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패션 연구성과를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버추얼 메타버스형 전시를 선보인다.

14일 국민대에 따르면 올해 7회차를 맞이한 이번 쇼케이스에서 국민대 융합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를 비롯해 신소재공학부·전자공학부·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상디자인학과·영상디자인학과·공업디자인학과·스포츠건강재활학과·경영학부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전공 간 융합을 통해 이뤄낸 스마트패션 결과물을 선보인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방문자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형 버추얼 쇼케이스로 제작해 최초로 전시한다.

본 전시는 스마트 패션의 본질 중 하나인 상호작용성에 집중해, 언택트 시대에 보다 많은 방문자·연구자들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또한 제품으로 평가하고 감상하면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17개의 융합 연구 내용을 상세하게 감상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지원(CRC)사업으로 선정된 국민대학교의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는 총 100억원의 정부지원과 협력기업들의 참여로 미래 스마트 패션 구현을 위한 제품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와 개방'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